

해남 흑석산 산림치유프로그램 '인기'

청소년·가족·직장인 체험서비스

4월 개장 이후 94회 681명 참여

땅끝 해남 흑석산 치유의 숲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프로그램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체험서비스로 인기가 높다.

해남군은 지난 4월 치유의 숲 개장과 함께 치유센터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산림치유프로그램에 지금까지 94회에 걸쳐 681명이 참여하는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흑석산 치유의 숲 산림치유프로그램은 생애 주기별 맞춤형 체험서비스로 청소년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 위한 '참숲 Edu-Healing', 가족의 건강 및 관계 형성을 위한 '참숲 Happy-Family', 직장인 직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참숲 Happy-Refresh', 행복한 황혼을 위한 '참숲 Happy-Senior'로 구성돼 있다.

치유프로그램 체험 활동으로는 숲 치유 레크리에이션, 참나무 숲에서 햇빛과 바람을 느끼는 치유명상, 삼ing보울을 통한 명상체험, 우드버너기 이용한 목공에 체험, 향기를 이용한 아로마테라피 등이 있다.

또 체지방 측정, 스트레스 측정, 혈압 측정 등 기



흑석산 치유의 숲 산림치유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참나무 숲에서 햇빛과 바람을 느끼는 치유명상을 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초적인 건강 체크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지난 5월에는 해남소방서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 이란 주제로 격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체험을 실시했으며, 계곡초등학교와 산이중학교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참여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프로그램은 전문 기관의 위탁운영으로 실시되고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체험료는 1인당 5000원이다. 특히 올해까지는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체험료 80%를 할인해 1000원만 내면 참여가 가능하다.

산림치유프로그램 참여 희망자 흑석산 치유의 숲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하면 된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주변의 위기기구 카카오톡으로 제보해주세요

영광군 플러스 친구 채널 운영

상담원 채팅 복지정보도 제공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카카오톡으로 제보해주세요."

영광군이 어려움에 처한 위기기구를 카카오톡 채널로 제보 받아 신속하게 지원한다.

영광군은 주변의 잘 알려지지 않은 어려운 이웃을 적극 발굴하고 복지정보 제공을 위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채널 '영광군청 영광이웃'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 채널은 '위기기구, 이웃이 찾아온다'를 슬로건으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이웃들이 직접 찾아내 제보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



위기기구 제보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영광군청' 또는 '영광이웃'을 검색해 친구로 추가한 후,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위기상황 등을 입력하면 등록된다. 등록된 제보는 영광군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에 실시간으로 접수되며, 이후 위기기구를 대상으로 신속한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

여기에 '1대1 복지 상담원 채팅' 기능 운영을 통해 복지정보도 편리하게 제공한다.

운영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며 "영광군은 다양한 위기기구 발굴 체계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영암군, 2년 연속 빈집 리모델링·반값 임대

비용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전입세대에 5년간 반값 임대해야

영암군이 전입세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방지된 '빈집 리모델링 및 반값 임대사업'을 2년 연속 추진한다.

빈집 리모델링 및 반값 임대사업은 장기 방지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무주택 전입세대(귀농, 귀촌, 청년 등)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에 최소 5년 이상 임대해준다.

영암군은 전남도 주관 '2021년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시행하게 됐다.

군은 오는 25일까지 리모델링 가능한 빈집 소유주를 대상으로 사업 희망자를 모집하고, 이후 현

장실사와 선정심사를 거쳐 총 10개소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빈집 소유주는 리모델링비를 최대 2000만원 지원받은 대신 최소 5년간 주변 시세의 반값에 의무적으로 전입세대에 임대해야 한다.

군은 올해는 사업희망자 모집부터 임대 희망 금액을 적시도록 해 임대료 적정 여부를 선정 심사사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향후 임대 비용을 투명하게 하고, 입주세대의 부담을 완화시켜 준다는 계획이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현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목포수협 감성돔 치어 7만3000마리 방류

목포수협이 대대적인 수산종자 방류로 '희망의 바다 만들기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목포수협은 지난 8일 목포시 북항 5부두 일대에서 수산자원 고갈로 어려움에 직면한 어업인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수산종자 방류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룡 조합장을 비롯한 목포수협 임직원과 조합원, 수산업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가했으며 감성돔 치어 7만3000여 마리를 방류했다.

방류한 감성돔 치어는 크기 5cm 이상으로 자연생태에 생존율이 높고 많은 소비가 이뤄지는 고부가가치 어종으로 성어가 되면 어획량 증가로 어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목포=문병선 기자·중부취재본부장 moon@

목포해경 성수기 맞은 마리나 선박 안전점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성수)은 마리나 선박 안전한 이용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안전·방역 분야 안전점검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마리나선박 운항 증가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점검한다.

대상은 목포시, 신안군, 진도군, 강진군 소재 마리나선박 대여업체 5개 사 등록 선박 8척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목포지사)과 협동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점검을 한다. 의무사항 준수 여부,

안전점검·승객 승선기록 관리(마리나정보 시스템 활용), 사고대응 요령 당부·전파에 대한 사항이다.

해양저온 이용자 안전을 위해 제작된 '해로드(SeaRoad) 앱'의 기상특보 확인, 긴급구조 요청 기능에 대해서도 홍보한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미비한 사항은 즉시 시정 요청해 안전하게 마리나 선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kwangju.co.kr



무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최우수 기관 선정

보건복지부 전국 복지시설 평가

무안군은 전국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무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인간존중의 장애인복지관'이라는 목표아래 지역사회와 소통하면서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서도 군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재가 방문, 비대면 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 중심의 복지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왔다.

김산 무안군수는 "무안군장애인복지관이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복지관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